

#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전한 절대 미션과 전도자의 삶 -복음으로 여는 유다서-

민수기 22:28-33, 유다서 1:17-23

정윤돈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기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불신앙하여 죄에 빠져서 오만가지 고통 속에서 이 땅에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문제 끝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얻었으니,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예수님을 낳은 육신적인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으신 후,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았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공생애를 시작한 후에도 예수님의 형제들과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결국 예수님의 두 형제인 야고브와 유다는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확실한 제자가 되었다. 특히 오늘 나눌 유다서의 저자 유다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이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겠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브,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기에 나오는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형제 유다이다. 유다의 뜻은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실 지어다.’이며, 이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가 아니다. 그리고 유다 자신도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자신을 ‘야고브의 형제라고 밝히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브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런데 유다는 1장 1절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고는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중에 유다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유다는 유다서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절대미션을 전달할 수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따라야 할 전도자의 삶을 제시해 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스도와 완전복음이 정확히 이해 될 때, 전도자의 삶 62가지는 따라오는 것이고, 전도자의 삶에 도전해야 하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류목사님은 완전복음 안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전한 절대미션과 전도자의 삶은 무엇일까?

## 1. 큰 첫 번째에서는 유다가 유다서를 통하여 전달한 절대미션들에 대하여 대표적인 것들만 알아보겠다.

(1) 동성애를 따르지 말라는 절대미션을 주셨다. 유다서 1장 7절을 보겠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동성애를 말하고 있는 또 다른 대표적인 구절은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 레위기 18장 22절, 레위기 20장 13절,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고린도전서 6장 9절이다. 이 말씀들을 찾아서 보겠다.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이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랫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의 어원인 ‘아답’는 성적인 관계를 뜻한다. 레위기 18장 22절이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몇 천년 전의 율법의 말씀인 레위기

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레위기 20장 13절이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다음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이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공동번역본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이다.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끄러운 욕정에 빠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여자들은 정상적인 성행위 대신 비정상적인 것을 즐기며 남자들 역시 여자와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버리고 남자끼리 정욕의 불길을 태우면서 서로 어울려서 망측한 것을 한다. 이렇게 그들은 스스로 그 잘못에 대한 응분의 벌을 받고 있다.’ 다음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이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기까지가 성경에 나오는 동성애와 관련된 성경구절이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동성애를 하고 있었던 초대교회성도들을 꾸지람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에 대하여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이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은 잘 정리하고 있어야 한다.

① 동성애를 쉽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여러분의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저는 이 남자와 결혼하겠다. 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에 걸린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인 것이다. 이러한 말은 너무나 동성애에 대한 현재 상황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② 교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이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창조원리에 위반된다.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 반대된다. 교회를 근본적으로 무너트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③ 동성애를 옹호하는 입장의 말이다.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은 반인권적인 것이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 ‘태어날 때부터 다른 몸으로 태어났다.’

④ 그렇다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복음적인 대답은 무엇일까?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 성경말씀은 의도적이고 쾌락적인 사회문화 및 우상문화에서 나타난 동성애는 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성애 중에는 유전적인 결합과 정신적인 문제로 장애와 질병과 같이 나타나는 동성애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떤 분은 유전자는 남자와 여자 밖에 없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유전적인 이상으로 회귀병과 다양한 정신질환들이 존재하고 있다.

⑤ 그러나 그 동성애가 절대적으로 유전적인 결합이 아니라면 도박과 같이 반복되어 학습된 악습일 수 있다. 중독과 같은 것이다. 동성애에 한 번 빠지면 중독되기 때문에 시작을 하지 말아야 한다. 평생 싸워야 한다. 치유 받은 많은 예가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다.

⑥ 그리고 동성애자가 중증장애인이나 정신적인 장애인처럼 인간의 노력이나 의학적인 치료로 불가능한 질병수준이라면 특별히 케어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는 의학적인 정밀진단을 해주고 성전환수술이나 특별법으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 특히, 이 부분은 정치인들과 행정가들이 참고해야 한다. 주의 할 점은 동성애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도와주어야 하지만, 음란한 차림이나 행위를 동반한 동성애 축제와 같은 것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 동성애자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정서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교회는 강도도, 창녀도, 살인자도 회개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다. 동성애를 사회적으로 예방해야 할 부분과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아야 할 소중한 생명이 라는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동성애자 전문상담팀과 동성애 전도캠프팀도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앞으로 급속하게 다가올 사회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지 말고 더 많이 공부해야 하겠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은 보편화가 되었다.

(2) 유다서를 통하여 주신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는 불법의 행위를 따르지 말라는 것이다. 이 내용은 약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다. 유다서는 1장으로 되어 있지만 다루어야 할 많은 내용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발람의 어그러진 교훈이 무엇인지, 발람의 잘못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유다서 1장 11절을 보겠다. '화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기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샅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그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 보면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라고 기록되어 있다. 발람은 당시 브돌에 살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모압 왕 발락의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끔 피를 쓴 선지자였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에 대한 기록을 보면, 발람 선지자의 잘못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 발락이 보낸 뇌물을 돌려보냈고, 마지못해 따라갔지만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저주해야 하는데 세 번이나 축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 가지 다른 부분의 성경내용을 보면 발람 선지자는 물질적인 탐욕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방법을 알려주는 피를 부렸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성경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 9절이다. '이스라엘이 싯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와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그 염병으로 죽은 자가 이만 사천 명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남성은 모압 여인들에게 유혹을 받았을까? 민수기 31장 15절에서 16절과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그 답이 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피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브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염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는 발락과 발람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즉,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도록 그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던 것이다.

(3) 그러므로 유다는 이러한 사탄의 울무에서 해방 받기 위해서 완전복음을 붙잡으라는 미션을 주었다. 완전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새 언약의 말씀이다. 유다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겠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강단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장하고 강조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 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대표적인 복음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이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은 피 제사를 통하여 출애굽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제사제도이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로 오셨는데 그 분이 임마누엘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된 현상이 마태복음 1장 21절이다. 그리고 완전복음과 완전한 신앙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직접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성령에 감동된 베드로는 재판정 앞에서 확신 있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지금까지의 말씀이 오직복음, 완전복음의 말씀이다.

(4) 사탄이 거저다 준 옛 틀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미션을 주었다. 그러한 사람들의 잘못된 특성을 유다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알려주고 있다.

- ①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이들은 방탕하여 하고 싶은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 중독자, 쾌락동성애자를 의미한다.
- ②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들은 교회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다.
- ③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욕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들은 구원 받지 못한 자를 의미한다.

## 2. 큰 두 번째에서는 유다가 유다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한 전도자의 삶이다.

- (1)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 (2) 유다서 1장 20절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리스도, 복음을 묵상하려는 것이다. 진도와 신교를 위한 땅 끝까지 증인되는 기도를 해야 한다.
- (3) 유다서 1장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 (4) 유다서 1장 21절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구원받았다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 주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한다.
- (5) 유다서 1장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래서 다락방을 하는 것이다.
- (6) 그리고 유다서 1장 23절에 보면 '어떤 자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려고 말씀하고 있다. 쾌락적인 동성애자와 신천지와 여호와 증인과 같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불 속에 빠진 사람들이다. 완전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더 공부하여 그들은 구원시켜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 팀사역, 지교회 운동하는 것이다.
- (7) 유다서 1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쾌락적 동성애자나, 유흥업소 접대부들의 옷가지도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비판하는 성도도 잘못 판단하거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다.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가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오늘도 유다서를 중심으로 우리들의 CVDIP를 발견하고자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유다서를 통하여 붙잡을 언약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교만, 잘난 척, 염려, 두려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란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유다가 부탁한 절대 미션과 전도자의 삶에 대한 말씀을 237나라와 모든 민족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4차 산업시대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위기의 시대에 자신이 해야 할 당연한 것, 꼭 필요한 것과 절대적인 것을 찾아 24시간 집중해보시기 바란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생생히 보일 때까지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해보시기 바란다. 이때 발람과 같이 사탄과 세상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5. Practice 실천이다. 어떤 한 주간도 비대면으로 예배와 다락방과 지교회를 하는 상황일지라도 줌과 통화와 영상, 카카오톡 등,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통해서, 900원장, 3천 제자를 위한 작품을 남기시기를 축원드린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절대계획 속에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한 이 때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현장에서 소수로 예배에 참석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도 믿음이 뒤쳐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이 계기를 통해서 오히려 30배, 60배, 100배의 영적인 축복을 받는 응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예수님의 형제 유다처럼 우리도 그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힘 있게 걸어가서,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훌륭한 일도 많이 했지만 비난 받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오히려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니 그 구원받은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는 새로운 응답의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